



###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교통안전활동 실시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가 최근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14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운지구대가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6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백운 지구대는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방문, 학교장 면담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현장점검을 나섰다.

박종환 백운지구대장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지역 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환자권의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 측은 최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병하 기자



### 광주 북구, 취약계층 약물 오남용 관리 앞장

#### 북구·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복약 환경 제공 목적

광주 북구는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취약계층의 약물 복용 관리를 위해 북구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강형철 북구 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및 북구 약사회 소속 약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다제약물관리사업 기본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복용 중인 약 종류가 15종이 넘는 노인에게 안전한 복약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에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가 직접 대상 가구에 방문해 복약 상담, 기한 경과 약물 회수, 처방 조정 안내 등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체기능이 약한 취약계층이 효과가 없거나 증폭되는 약물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구 약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복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북구 약사회 강형철 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제약물관리사업을 비롯한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돌봄 사각지대 없는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 승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광주 북구 승일고에서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진)

광주시는 지난 11일 오전 승일고등학교에서 광복회 광주지부 주관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최승복 광주시 부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광복회원, 승일고 교직원 및 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약사보고, 기념사,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발표,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승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호남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역사 특강도 열렸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선열들의 헌신에서 위기 극복의 힘과 통합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진로컨설팅 OT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자립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로컨설팅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자립 연령 아동들에게 자신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진로컨설팅 사업은 진로취업교육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비대면 컨설팅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지난 12일은 진로컨설팅 참여 아동 및 보호자, 진로 및 입시, 취업에 고민과 관심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의 의미와 자립준비의 중요성, 전공과 직업선택을 위한 Career Profiling, 나의 비전 설계 등을 안내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진로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 자립 준비에 대한 감각을 형성했다.

정승우 기자



### 광주 동부경찰, 출근길 의무위반 근절 캠페인

광주 동부경찰은 14일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무위반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동부경찰 제9



### 광주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제14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 기술을 익히고 공유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1개 팀과 대학·일반부 6개 팀 등 총 7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심정지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행동을 주제로 8분 이내의 발표 경연을 벌였다.

경연 결과, 무대 표현, 심폐소생술 평가표, 장비를 이용한 기록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청소년부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루미너스 팀(서부소방 대표)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정상아 기자



### 광주교통공사, 역사 사고 대비 비상대응훈련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산구 도산역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사고 수습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에서는 역사 내에서 위험물이 폭발한 상황을 가정했으며, 초기 상황 전파부터 파손된 시설물 복구 및 정상 운행 개시까지의 전 과정을 생동감있게 진행하며 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했다. 특히 공사 조익문 사장은 훈련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각 기술 분야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재난 상황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조익문 사장은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과 비상대응 훈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험 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젠첼라' 제니, '코첼라 헤드라이너 블랙핑크' 잇게 하다

제니(사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 엠파이어 폴로 클럽에서 열린 올해 코첼라 페스티벌 1주차 셋째 날 페스티벌 두 번째 큰 무대인 아웃도어 시어터에선 선보인 단독무대는 블랙핑크 행간을 지워도 충분했다.

'필터(Filter)'로 시작해 제니가 최근 발매한 첫 솔로 앨범 '루비' 수록곡 위주로 꾸민 이날 무대는 변주와 재치의 다중주가 돋보이는 명석함이 우아했다. 2023년 코첼라 헤드라이너 블랙핑크의 아우라에 기대지 않아도 딱 50분이었다.

'루비' 발매 기념 쇼케이스 형식의 콘서트 '더 루비 익스피리언스(The Ruby Experience)'와 다른 세트리스트 편곡으로, 강렬한 눈도장을 받았다. 실 새 없이 춤을 추면서 열세 곡을 들려주는 내내 폭발력을 잃지 않았는데 라이브도 안정적이었다.

'만트라'에서 비트가 전환된 뒤 여성 댄스들과 선보인 합은 신출귀몰의 현



장이었다.

암흑 속 부엉이가 스크린에 등장한 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 격렬한 수행 같은 무대를 선보인

'젠(ZEN)'도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담 라이트(Damn Right)'에선 이 곡 피처링에 참여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칼리 우치스(Kali Uchis)가 등장했다.

제니는 '핸들바' '러브행오버' '엑스트라' 등 본래 피처링이 있는 다른 곡들은 홀로 소화했다. 하지만 빈틈을 느끼게 하기는커녕 색다른 듣는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컴 온, 잇츠 곤 비 fxxx 하드(Come on, it's gon be fxxx hard)'를 외치고 열광적으로 무대에 임한 '라이크 제니'에선 넓은 공간에 대거 운집한 음향 팬들 사이에서 큰 매력이 터져 나왔다.

뉴시스